



마린보이 '한국 신기록' 박태환(25·인천시청)이 17일 오후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이틀째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역영하고 있다. 이날 박태환은 2분00초31의 한국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별들의 '나눔 잔치'

오늘 KIA 챔피언스필드 프로야구 올스타전

세월호 피해가족에 1억원... 홈런·안타 적립금 사회단체 후원
동군·서군 마지막 승부... 번트·홈런·퍼펙트 피쳐왕 등 이벤트

'나눔'의 올스타전이 펼쳐진다.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14 올스타전의 부제는 '야구 나누다'이다. 야구로 사랑, 즐거움, 마지막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첫 번째 나눔은 '사랑'.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이번 올스타전 입장수입 중 1억 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벤트를 통한 기부금 적립도 확대했다. 홈런 레이스에서 나오는 홈런 1개당 50만원, 번트왕에서 기록되는 1득점 당 10만원, 퍼펙트 피쳐에서 나오는 1득점 당 20만원씩이 적립된다. 올스타전 본 경기에서는 투수의 탈삼진 1개당 50만

원씩, 홈런 1개당 100만원씩을 쌓게 된다. 적립된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희망봉사단 후원 아동 및 올스타전이 열리는 광주 지역 사회 공헌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난치병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KBO는 난치병을 어린이를 돕는 '한국 메이커어워시재단'으로부터 야구 경기에 참여해 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한 아이의 사연을 전해 듣고 올스타전 무대에서 그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프로야구의 큰 잔치인 만큼 '즐거움'이 빠질 수는 없다. 다양한 이벤트로 프로야구 별들과 팬들이 즐

거움을 나누게 된다. 프로야구 유망주들이 맞붙는 퓨처스 올스타전은 패기 넘치는 승부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정교함으로 번트왕 자리를 노리는 이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퍼펙트 피쳐를 통해 투수들은 제구력을 다투게 된다. 그라운드에서 스타들을 만나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팬 사인회도 즐거움의 무대다. 세 번째는 '야구로 마지막을 나누다'이다. 이번 올스타전은 33년 라이벌의 마지막 승부다. 그동안 동군과 서군으로 대결이 이뤄졌지만, 내년 시즌 10구단 시대가 열리면서 올스타전 팀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한국 야구의 영웅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자리도 준비됐다.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다승 투수(124승)로 우뚝 섰던 박찬호가 프로야구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야구를 이끌어가는 후배들과 팬들 앞에서 시구를 하게 되는 박찬호는 경기 전 팬사인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형

프로야구 올스타전 최초의 '더블헤더'

퓨처스리그 우천 순연 오늘 낮 12시

장맛비에 퓨처스 올스타전이 하루 연기됐다. 올스타전은 예정대로 18일 오후 7시 시작된다. 17일 오후 5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4 퓨처스 올스타전이 우천 순연됐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의 미래들이 대결하는 퓨처스 올스타전은 18일 낮 12시로 연기됐다.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은 오후 7시 시작된다. 세부 일정에도 변화가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팬사인회는 오후 3시10분부터 4시10분까지 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번트 솜씨를 겨루는 번트왕은 4시15분, 투수들의 제구력을 겨루는 퍼펙트 피쳐는 오후 4시20분에 시작된다. 홈런 레이스는 오후 5시5분부터 펼쳐진다. 예선은 7아웃제로 진행되며, 결승은 10아웃 방식으로 치러진다. 올스타전 공식 행사에 이어 경기는 7시부터 진행된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에서 은퇴 행사를 갖는 박찬호는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5시10분부터 경기장 중앙 출입구 행사장에서 팬사인회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대제전 12월 마산서

모교의 자존심을 건 야구인들의 승부가 12월 창원에서 펼쳐진다. 대한야구협회(KBA)가 2014 야구대제전을 오는 12월5일부터 15일까지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야구대제전은 프로 현역 및 은퇴선수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교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로 1979년 성인 올스타전으로 출발한 뒤 1981년까지 세 차례 개최됐다. 1·2회 대회는 최동원을 앞세운 경남교가 정상에 올랐고, 3회 대회에서는 인천교가 챔피언에 등극했다. 32년 만에 부활한 지난 대회에서는 장재근 총감독이 지휘한 광주 동성고(전 광주상고)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1000만원의 상금을 챙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옛명성 찾을까

PGA 브리티시오픈 개막

우승트로피 클라레저그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 정상급 골퍼들의 샷대결이 1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제143회를 맞는 올해 브리티시오픈은 잉글랜드 호어레이크의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파 72, 7312야드)에서 개막해 나흘간 열전에 들어간다. 총상금 540만 파운드(약 93억7000만원), 우승상금 97만5000파운드(약 16억9000만원)가 걸린 브리티시오픈은 마스터스, US오픈에 이어 시즌 세 번째로 열리는 메이저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한다. 2008년 US오픈에서 우승한 뒤 메이저대회 승수를 추가하지 못한 우즈가 재활을 끝내고 개인 통산 15번째 메이저 완공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즈와 함께 지난해 챔피언 필 미켈슨(미국), 세계랭킹 1위 애덤 스코트(호주), 슬럼프 탈출을 선언한 로리 매켄로이(북아일랜드), 세계랭킹 2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올해 US오픈 우승자 마르틴 카이머(독일) 등 쟁쟁한 선수들이 우승 경쟁에 나선다. 한국선수와 교포선수로는 최경주(44·SK텔레콤), 양용은(42·KB금융그룹), 케빈 나(31·타이틀리스트), 김형성(34·현대자동차), 정연진(24), 장동규(26), 김형태(37), 안병훈(23)까지 8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광주FC, FA컵 8강 실패 恨 푼다

K리그 19R... 오늘 수원과 홈경기

광주 FC가 19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4 K리그 챌린지 19라운드 수원 FC와의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6월30일 대구와의 홈 경기 이후 원정 3연전을 다녀왔다. 모처럼의 홈경기에서 홈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는 각오다. 아쉬움을 털기 위한 경기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 16일 성남 FC를 상대로 구단 역사상 첫 FA

컵 8강을 노렸지만, 연장전 끝에 1-2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다. 승리는 거두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높은 볼 점유율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은 광주는 짧은 패스로부터 시작된 빠른 공격 전개로 성남을 흔들었다. 0-1로 끌려가던 후반 29분에는 파비오가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는 등 끈질긴 승부로 상대를 압박했다. 공격 자원들의 움직임도 좋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친정으로 복귀한 박현이 후반전 교체 투

입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디에고도 10분 정도 경기를 소화하며 위망업을 마쳤다. FA컵 포함 2연패를 기록했지만 플레이가 무르익어 가면서 충분히 순위싸움을 벌일 수 있는 저력을 만들었다. 이번 수원과의 경기는 체력이 변수다. 광주는 FA컵 경기 이후 3일 만에 수원을 만나게 됐다. 게다가 성남과의 경기에서 베스트 멤버가 총출동해 연장까지 가는 열투를 벌였다. 다행히 상대

수원도 입장이 비슷하다. 부산 아이파크와 FA컵 원정 경기를 벌였던 수원도 역시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기록하며 피로감이 쌓였다. 승점도 비슷하다. 수원이 승점 22로 7위에 올라 있고, 광주는 21점으로 8위에 랭크됐다. 광주는 올 시즌 수원과의 두 차례 대결에서 1승1무를 기록하고 있다. 수원이 빠른 발을 보유한 공격수를 활용한 역습이 뛰어나지만 김본광과 하정현이 경고누적으로 경기를 뒤흔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광주는 임선영·김민수·김호남 등이 버티고 있는 공격진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며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가 매서워진 창으로 홈경기에서 승리를 부를 수 있을 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